



보도자료

배포일시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9일 오후2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KIND-SH공사 손잡고 해외 스마트시티/도시개발사업 이끈다

- 해외 스마트시티/도시개발 사업추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
- 두 기관간 사업정보 및 인력 교류, 네트워크 공유 및 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공동개발, 실행, 관리
- 스마트시티 등 융·복합 사업의 전담조직을 신설한 KIND와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보유한 SH공사간 활발한 시너지 기대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와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, 사장 김세용)은 해외 투자개발형 스마트시티/도시개발사업 해외시장 진출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업무 협약(MOU)을 9일 체결했다.
-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스마트 시티 및 도시개발 노하우와 선진 금융기법 등을 활용하여,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컨설팅 및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.
-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사업 정보와 기술, 인력과 네트워크를 공유한다. KIND는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사업에 SH공사와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금융지원을 하고, SH공사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건설·운영 관련 정책 및 시행 노하우와 함께 전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. 공공디벨로퍼로서 다수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SH공사와 해외 인프라·도시개발 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D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요지다.

- 또한, 두 기관은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위해 국내외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서울시 및 SH공사 사업 현장 및 운영시설 견학, 홍보지원, 국내외 행사 개최도 계획하고 있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민관 동반진출 활성화에도 동참할 계획이다.
- KIND는 지난 2019.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「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」의 일환으로, 고부가가치 융·복합 사업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. KIND는 전담조직을 통해 중앙부처 및 공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, 이번 SH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함께하는 범정부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KIND 관계자는 “KIND가 갖고 있는 해외 인프라 사업의 발굴, 개발, 금융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능력과 SH공사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사업 실행 능력이 융합돼 스마트시티/도시개발 수출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”는 기대를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융복합사업실 이경수(☎ 02-6746-73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